

실손24 대국민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점검 회의

모두 발언

2026. 5. 11.(월) 15:00

손해보험협회 열린회의실(광화문 케이트원타워 15F)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님,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님,
그리고 업계와 소비자단체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실손 보험금을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는 실손청구전산화가
긴 진통 끝에 2024년 10월에 시행되었습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4년이 소요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의료계도 참여하여 협력의 물꼬를 트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구전산화 시스템에
의료기관 연계율은 29%, 가입자는 377만명으로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대통령께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14년의 논의 끝에 만들어진 제도가
시행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연계율 29%에 머무는 것,
그리고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정상입니다.

정부는 이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실손청구전산화는 국민, 의료계 및 보험회사
우리 모두에 이익이 되는 제도이며,
특히,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보험에 가입한
약 4천만의 국민들께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리시게 됩니다.

※ '25.12월말 기준 실손보험 피보험자수 약 4,035만명

병원 창구에서 줄 서서 서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챙겨서,
사진을 찍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소액의 보험금이라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수천억원의 실손보험금이 청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돈입니다.

의료계와 보험사도 종이 서류 발급과 처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실손청구전산화 시스템은 모든 참여자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국민서비스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II. EMR 업체에 드리는 당부

최근 동네 병·의원의 청구전산화 참여에
관문 역할을 하는, 주요 EMR* 업체가
동참하기로 했다는 고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 Electronic Medical Record 업체: 전자의무기록을 전산처리하는 프로그램 개발·제공

이 EMR 업체가 참여할 경우,
병·의원 연계율은 52%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힘든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실손청구 전산화의 편익을
온전히 누리시기 위해서는 병·의원 연계율이
100%에 육박하게 올라가야 합니다.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한 공공 정책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바라며,
업체가 불참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EMR 업체의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未참여 EMR 업체와 직접 만나
참여를 적극 설득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해온 행태에 대해,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청구전산화의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Ⅲ. 연계율 제고를 위한 추가노력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께서 전국 어느 병·의원에서나, 실손 보험금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청구하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청구전산화 활성화 추진방안을 재점검하고 연계율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도록 정책을 개선하겠습니다.

- ① 직접 의료기관에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 ② 사용경험과 편리함을 느낀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未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에 청구전산화 참여가 法상 의무임을 공문으로 안내하여 참여를 독려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협업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계율이 조속히 제고될 수 있도록 「실손24」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EMR 업체나 의원들의 참여가 50%를 넘어 탄력을 받고, 국민들이 그 편리함을 체감하신다면 참여기관이 참여기관을 부르는 선순환과 네트워크 효과로 청구전산화 연계율 100% 달성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청구전산화 연계 병원을 이용해 주시고,
未연계 병원에는 연계를 요청하고,
미흡한 부분은 따끔하게 질타해 주시며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네이버·토스와 함께,
4천만 가입자가 직접 병원에 연계를 요청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국민·의료기관·의무기록전산화 업체가 뜻을 모아
청구전산화 시스템을 현장에서 안착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